

# 세계화와 한국 경제

김세원 / 서울대학교 교수, 국제경제학

급년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떻게 과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실천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제화와 세계화 자체의 의의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해 온 선진화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화, 세계화 함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설정한다면 결국은 선진국의 모습인데,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세계적이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결국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시발을 이룬다고 할 수 있고 하나의 동태적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델이 무엇이나 했을 때 물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모델이 되겠지만, 그 모델 자체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변해가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답습하고 한국 경제 내에서 부작용없이 소화하여 수용할 때 세계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국제화라는 것은 국제간의 거래, 왕래, 교류 등이 보다 긴밀해져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가는 과정을 국제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계화라는 것은 보다 현대화되고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과 같은 기술 수단의 발전과 경제적으로는 생산 요소인 자본, 노동, 기술 등이 보다 자유롭게 유통됨으로써 국제화보다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국가간을 넘어서는 국제화와는 다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세계화라고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따라서 국제화는 보다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인데 비해 세계화는 수직적인 유대를 이루는 보다 통합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의 자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

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 자체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나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과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로 본다면, 국제 경제학 측면에서도 국제화·세계화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국제 경제 이론은 한마디로 비교 이론 자체가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간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요소 부존면에서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미국이 절대적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자본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노동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노동 집약적 상품을 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어서 비교 우위 상품을 교환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교의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세계 경제에서는 보다 경쟁 우위 혹은 절대 우위라는 개념이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간에 생산 요소, 자본이나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해서 노하우, 기술 등이 자유롭게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범세계적인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를 결

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파나소닉 같은 제품은 부품이나 자재 등은 전부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것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품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생산 요소를 가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은 자본 비용이 가장 싼 곳에서, 기술은 기술 우위가 있는 나라에서, 원자재도 가장 싼 지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게 되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우위, 과연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제 경제학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비교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이제는 비교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 우위, 절대 경쟁력 개념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기 때문에 국가간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화보다는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쉬운것은 소위 국제적으로 생산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해외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해외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를 1976년, 1990년, 2000년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현격하게 증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76년에 20%에서 2000년에 25%

로, 일본의 경우 76년에 4%에서 90년에 7%, 2000년에 24%까지 증대될 전망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81%, 82%로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해외 생산 거점을 통해서 보다는 세계적인 생산 거점을 통해서 진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WT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는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비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EU같은 경우에 회원국과 EU간의 권한 논쟁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지만 내년부터 WTO 체제가 출범하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1947년 GATT가 탄생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이 ITO, 즉 국제무역기구입니다. 1948년 조인까지 되었으나 발의국인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WTO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는 ITO, 국제무역기구이고 이번에는 내년부터 출범하게 될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당시에는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라고 했다가 이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선진국간에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라는 명칭보다는 세계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간에 거래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그동안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도도 높아졌으며, 경제 정책면에서 국가간의 상호 영향이 커졌으며 향후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언급되고 있는 환경 정책이나 또는 노동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WTO내에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간의 상품 이동, 용역 및 서비스의 이동 그 자체를 보다 자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WTO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소위 세계무역기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국제 경제에서 세계 경제로 가는 추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과거 논의되었던 ITO가 이제는 WTO가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세계의 큰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적인 기준이 무엇이나?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보다 혁신적이고 우리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세계화·국제화를 생각해야 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를 추구하고 국제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방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잘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의 것을 고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고집하고 배타적인 정서만을 추구했을

경우에는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다 혁신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것을 잘 키울 때 우리가 선진화가 되는 것이고 세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진 제도를 도입은 하되 우리의 것으로 소화·흡수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경제가 이제까지는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양적인 확대를 추구해 왔지만 1996년에 선진국의 문턱인 OECD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인데 OECD 가입 자체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1980년대부터 OECD 가입 얘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는 OECD 가입 자체가 마치 선진국이 되는냥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OECD에 가입한답시고 선부르게 개방을 추구한다면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방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자율성을 제고시킨 다음에 대외 개방이 이루어져야 선진국 수준이 안된 국내 여건과 국내 시장도 개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외 개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OECD 가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이야

기한 두 가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도 이미 OECD에 가입하였으며, OECD가 이제는 세계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지 그 자체가 선진국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OECD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제는 개방해야만 되는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라도 개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의 완화와 철폐도 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OECD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발전 모형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뛰어 왔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발전 모형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는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모두 그 나라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고유의 문화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의 틀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단순히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단순한 논리만 갖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현대자동차 딜러에게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딜러는 현대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하자 한국 경제와 현대의 현 위치, 기술 수준, 문화와 전통 등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후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은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산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의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상품은 아메리카 드림이나 개척자 정신을, 일본의 상품은 아기자기하고 상당히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프랑스의 상품은 사치, 자유, 그리고 신비로움을, 독일 상품은 완고하고 튼튼한 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즉 해외 상품을 구입할 때에 그 나라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도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아프리카産 자동차나 PC는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나라의 이미지를 심어 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의 추진은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점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킬 때 세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WTO와 지역주의, APEC 등을 세계화, 국제화와 연결시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WTO의 설립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의 주도적인

경제력의 위치를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GATT 체제의 조문을 보면 GATT에 의한 세계 무역 질서라는 것은 미국의 질서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1947년 GATT가 탄생할 당시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GATT 조문이 미국 국내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ATT 운영이 원만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미국이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섬유류 다자간 협정이나 수출국 자율 규제 등 회색 지대(Grey Area)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협정들은 GATT 체제의 영향을 벗어났었습니다. 극히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EU의 공동 농업 정책과 수입 제한 정책도 GATT의 테두리 밖에서 협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이나 EU가 규칙을 만드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GATT 체제에서는 세계 경제의 강자 논리가 묵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새롭게 출범하는 WTO에서는 모든 협상을 체제내에서 수렴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GATT 테두리 밖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던 소위 회색 지대의 여지가 사라지게 되고 WTO라는 세계무역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 정책, 노동 정책, 경쟁 정책 등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WTO 체제의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미국과 EU의 농업 협상 결과를 본다면 선진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WTO 체제도 GATT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우리의 것으로 키워나갈 수 있

다면 WTO 체제도 잘 활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WTO 체제가 우리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WTO 체제가 탄생하면서 단순히 협상을 통한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이러한 개방을 하기 위한 터전으로서 국제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 거래를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지킬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환경 정책 문제, 노동 정책, 경쟁 정책, 기술 정책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국제화를 통해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왔고 한나라의 경제 정책과 경제 제도가 대외 거래, 국제 거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않고서는 국제 거래가 원만히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 주권 자체가 자의적으로 추구되서는 안되고 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런 이익을 얻으려하는 서로 규범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 경제 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된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국제적으로 경제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었고 그만큼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제 경제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과거와 같이 개방, 거래 확대 위주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WTO 체제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EU입니다. 작년 12월부터 EC가 EU로 통합되었고 미국도 NAFTA를 금년부터 출범시켜 다자주의도 추구하지만 지역주의도 추구하겠다는 이원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배타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블럭 경제를 의미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주의는 경제적 측면에 한정된 국제화, 세계화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무역이나 상품 무역을 전세계적으로 자유화할 수 없었을 때, 이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역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의 경우 하나의 공동 시장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 통합체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EU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의 평화입니다.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그 이유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나타난 보호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민족주의입니다. 자국의 생산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관 개념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불이익을 당해 왔고 원하지 않는 전쟁과 이념 논쟁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정치·경제 측면에서 단일 시장을 추구하여 탄생시킨 것이 EU입니다. 물론 미국을 주축으로 출범된 NAFTA, 자유 무역 지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지역주의가 갖는 양면성, 회원국 사이에는 자유화, 국제화, 세계화이고 비회원국들에게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 자유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보호주의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의 의미입니다.

현재의 국제 경제의 흐름은 양대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WTO같은 다자주의, 무차별주의이고 하나는 지역주의입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 것인가가 향후에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WTO와 같은 다자주의가 강화되어야지만 지역주의가 갖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자주의가 확대되어 거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또한 국제적인 규범이 제정되고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지역주의가 갖는 의미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길은 현 상황에서 WTO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APEC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 것인가? APEC을 환상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어느 지역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그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은 국

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입니다. APEC이 우리나라에게 지역주의가 갖는 이점을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지역주의와 비슷한 역할을 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APEC이 바람직한 지역주의를 지향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성립되어 이들 지역에 공동 시장이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대된 시장 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APEC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APEC 시장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準 지역주의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PEC은 NAFTA나 EU와 같이 자유 무역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APEC의 회원 수가 현재 18 개국인데 앞으로 러시아와 인도차이나의 4 개국이 가입할 전망이고 체제와 규모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 무역 지역이 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PEC을 구태여 자유 무역 지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APEC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통신 인프라를 공동 개발한다든지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실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WTO나 지역주의나 APEC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한국 경

제가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화·세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의 전환을 얘기하면서 남들이 변해 주기를 바라지 나 자신이 먼저 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몇가지 정리를 하면 우선 한국적인 시장 경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 자율성,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경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 절차의 간소화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석학이라고 하는 말랭로우라는 경제학자는 '규제는 선부른 완화보다는 완전히 없애야된다. 선부르게 완화하려고 뜯어 고치다 보면 엉뚱한 규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이 철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는 정부의 기능이 서비스의 개발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 집중도 세계 경쟁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하여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 경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항상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어야 하고 세계화 추세

에 맞추어서 동태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변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적절히 기능을 재정립 해야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법 질서의 확립입니다. 여기서 법 질서란 단순히 실정법, 질서, 관행 이런 것을 포함한 제도를 말합니다. 법 질서가 확립되면 그 자체가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법질서를 재정립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이예크가 이야기 했듯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법의 정신이 제대로 정착되어야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 개혁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제도를 바로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내용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육 제도는 가치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유럽인들의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야 될 일인데, 시장 기능과 별도로 공동체 의식은 소위 한국적인 전통, 문화, 사회, 관행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한국적인 시장 경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